

한성대신문

꿈꾸던 대학생활, D-DAY

대학 생활에 대해 부푼 기대감을 안은 채 본교로 입학한 새내기들. 많은 새내기가 고등학교 생활과는 다르게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그러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언제 이뤄지는지 한눈에 알려주는 곳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본지가 대학생활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1학기에 진행될 다양한 행사를 시기별로 소개한다.

새로운 시작,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처음으로 새내기를 반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이뤄지는 행사다. 신입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트랙별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19·21·22일에 걸쳐 진행된다. 장문수(컴공 3) 총학생회장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신입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한성대신문사]



신입생만의 축제, 새내기새로배움터

새내기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선배의 조언과 동기와의 친목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내가 속한 단과대학의 선배, 동기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는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는 새내기에 꼭 필요한 행사다. 동아리 공연뿐 아니라 단과대학별 응원전과 같이 새내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존재한다. 또한 총학생회 등의 본교 학생 자치기구와 한성프레스센터 소속의 한

성대신문사, 방송국 HBS, 영자신문사 Hansung Today의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있다. 새터는 개강 이전인 2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장 회장은 "새터는 각 단과대학별 신입생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라며 "선배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에 본인이 속한 단과대학의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다. 많은 신입생이 가장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월



동아리 맛보기, 동아리 박람회

많은 신입생이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동아리 활동 또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본교의 수많은 동아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동아리 박람회'가 새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동아리 박람회는 각 동아리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장으로, 동아리 미가입자에게 동아리 선택의 길잡이가 되는 행사다. 1학기 동아리 박람회는 3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연예술

분과 ▲종교분과 ▲학술분과 ▲체육분과 ▲평면예술분과 ▲취미봉사분과에 속한 각 동아리가 부스를 운영하며, 공연예술분과에 속한 동아리의 공연도 볼 수 있다.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할 임정아(사회과학 2) 동아리연합회장은 "학내 많은 동아리가 한 곳에 모이는 자리"라며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평소 궁금증을 가진 동아리들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대학생활의 꽃, 대동제

슬슬 대학생활에 적응할 무렵, 처음 치른 중간고사로 지친 신입생을 달랠 행사가 다가온다. 바로 '대동제'가 그 주인공이다. 본교의 모든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대동제에서는 여느 대학의 축제와 유사하게 다양한 이벤트와 음식이 마련돼 있는 트랙, 학과(부)의 주점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동아리의 공연과 연예인의 축하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대학생

활의 꽃이라 불리는 대동제를 통해 신입생들은 본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동시에 고된 입시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이전의 대동제는 5월에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올해 대동제의 개최 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올해 대동제를 진행할 장 회장은 "본교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인 대동제를 통해 많은 학우가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월



여름 방학



마음에 햇살을 담은 농촌봉사활동

방학에도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는 존재한다. 바로 농촌으로 가 일손을 보태고,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보는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이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농촌 생활을 체험함과 동시에 학우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기

회로도 작용한다. 농활은 통상 여름방학 중인 6~7월경에 진행된다. 무더운 여름의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괴로울 수 있지만, 학우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뿌듯함과 농부와 같이 나누는 수확의 기쁨은 큰 자산이 될 테다. 농활과 관련해 장 회장은 "농활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며 보다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북돋웠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사진 제공: 학생장학팀]



[사진 출처: 한성대신문사]

- 1 작년 초에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 2 작년 2월에 열린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
- 3 작년 3월, 동아리 박람회에서 학생이 'brillante' 부스체험에 참여한다.
- 4 작년 5월, 대동제를 즐기러 잔디광장에 모인 학생들
- 5 작년 6월에 진행된 농촌봉사활동에서 학생들이 농사 일을 체험한다.



강의실 너머, 한성의 또 다른 학습의 장

본교의 새내기라면 반드시 듣게 되는 수업이 있다. 바로 교양필수과목에 해당하는 '영어커뮤니케이션'과 '사고와 표현'이다. 영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고와 표현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강의실에 앉아 수업만 듣는다고 완벽히 갖추 수 없는 법. 영어 실력과 표현 능력을 더욱 기르고 싶은 새내기들을 위해, 기자가 강의실 밖에 있는 '한성의 배움터' 2곳과 그곳에서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 및 대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졸업하려면 800pt를 채워야 하는 비교과 포인트도 지급되며, 두 눈 크게 뜨고 정독해 보라.

'학문'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생활'로서의 영어,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본교 미래관 지하 1층 'English Lounge(이하 잉글리쉬 라운지)'에 방문해 보자. 잉글리쉬 라운지에서는 올해 ▲Open Activity ▲Group Speak ▲Virtual Exchange ▲English Corner ▲Virtual Global English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시된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nglish Corner는 잉글리쉬 라운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관 지하 1층 카페 '그라피에' 옆에 위치한 잉글리쉬 라운지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잉글리쉬 라운지에는 많은 학생과 교수들을 만나며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 중 'Open Activity'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원어민 교수의 영어 수업을 듣고, 해당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어 회화의 기본기를 쌓는 것은 물론 많은 학우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는 최대 100pt다.

강의를 듣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교수와 대화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주제를 놓고 4~8인의 학생이 영어로 소통하는 'Group Speak'를 신청해 보라. 해당 프로그램은 한 학기당 6주, 1년에 12주 동안 진행하며 방중에도 활동을 이어간다. 참여 시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는 한 학기당 30pt로, 1년에 최대 60pt를 받을 수 있다.

1명의 교수보다는 다수의 원어민과 대화하며 회화 능력을 기르고 싶은 새나기는 'Virtual Exchange'도 고민해 보자. 이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Lorain County Community College(로레인 카운티 커뮤니티 대학)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발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표현능력상당 등이 진행되는 사고와표현과정 행정실(진리관 104호)

영미권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현지 친구도 사귄다. 발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 매주 공지되는 질문에 미국 학생들과 공동으로 답변을 남겨야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 작년 기준 100pt가 지급됐으나, 올해는 변동될 수 있으니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 편한 내향성 새나기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English Corner' 프로그램에서는 원어민 교수와의 1:1 회화 및 영문 첨삭이 가능하다. 영어 회화와 작문에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참여할 때마다 비교과 포인트 2pt가 지급되며, 한 학기당 최대 20pt까지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실생활 영어 표현 학습이 가능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Virtual Global English'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미국의 특정 문화와 관련한 회화나 상황에 알맞은 회화 표현 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마련돼 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영상마다 비교과 포인트 2pt가 지급되고 최대 20pt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상 시청 후 퀴즈를 풀고 80% 이상의 정답률을 달성해야 한다.

잉글리쉬 라운지에서 활동한 내역을 본인의 영어커뮤니케이션 담당 교수에게 인증하면 학점에 반영되는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새나기라면 한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김우진(교양영어과정) 조교는 "실제 잉글리쉬 라운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실력이 향상된 학생들이 많이 봤다"며 "영어 소통 능력을 늘리고 싶다면 잉글리쉬 라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자기표현'의 시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인 글쓰기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싶은 새나기는 본교 글쓰기센터를 애용해야 한다. 일목요연하고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대회를 찾고 있는 새나기 또한 글쓰기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주목해 보자. ▲한성인 글쓰기 대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표현능력상당 ▲글방 프로그램 등이 글쓰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대회다. 제시된 대회와 프로그램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로 제 19회를 맞이할 '한성인 글쓰기 대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1학기에 개최된다. ▲표현력 ▲이해력 ▲논리력 ▲비판력 ▲구성력의 주요 평가 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판단한다. 대회 참여 시 비교과 포인트 20pt가 지급되고 수상에 따라 60pt까지 받을 수 있다.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직접 생각해 보고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 평가 기준에 맞게 수상자를 정한다. 오는 2학기에 제18회 대회가 개최되며, 참여 시 40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 입상한다면 60pt를 지급받으며, 대회 본선을 방청만 해도 5pt가 지급된다.

자신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대회보다는 표현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새나기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이 중 '표현능력상당'은 글쓰기 고민에 대한 사고와 표현과정 소속 학술연구원의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방식을 통해 학술연구

원의 첨삭과 피드백을 1:1로 받을 수 있다. 학술 보고서 작성 능력과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기술 함양, 경쟁력 있는 리포트 작성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1회 상담 시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되고 내국인 학생은 최대 30pt, 외국인 학생은 최대 50pt까지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비문을 접하고, 비문에 대한 소규모 집단 토론을 통해 비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방'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퇴고하는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로 사고와표현과정 학술 연구원과 글쓰기 고민을 나누며 집중 글쓰기 지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각 글방마다 수업 방식이나 구성 등이 다르기에 자세한 사항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1회 참여 시 비교과 포인트 30pt가 지급되고 최대 90pt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료증도 부여된다.

대학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표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쓰기센터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표현 능력 향상을 원하는 새나기는 꼭 글쓰기센터의 프로그램이나 대회에 참여해보기 바란다. 윤주은(사고와표현과정) 조교는 "글쓰기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도 경쟁력을 기르고 싶은 새나기를 위해 본교에는 많은 프로그램과 대회가 존재한다. 다양한 학우를 만나고 비교과 포인트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잉글리쉬 라운지와 글쓰기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당신이 '한성의 인재'입니다 : 한성인재장학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합격만큼 짜릿한 기쁨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장학금'이다. 본교에 입학할 신입생 중에서도 입학 성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받게 된 이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 성적이 그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좌절하기에는 이르다.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한성인재장학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성인재장학금은 재학생이 본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대학생활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싶은 새나기라면, 이 기사를 읽고 한성인재장학금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해 보라.

본교의 장학 제도는 크게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내장학금은 본교의 장학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성된 장학금이다. 교외장학금은 기업, 개인 등 교외의 주체가 조성한 장학금으로, 해당 주체가 정한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교내장학금은 다시 ▲등록금지원 장학금 ▲근로 장학금 ▲발전기금 장학금 ▲한성미래 장학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등록금지원 장학금은 말 그대로 본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지원 장학금 또한 ▲성적우수 장학금 ▲법정 장학금 ▲한성복지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IPP(특성화사업) 장학금 등으로 세분되는데, 그 중 성적이 우수한 신입·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성적우수 장학금'에 한성인재장학금이 속해 있다. 본교 「장학금 규정」에서는 성적우수 장학금의 공통된 지급 기준으로 '평점평균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기에, 한성인재장학금 또한 이 조건에 해당된다.

한성인재장학금은 '한성인재포인트' 적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과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성인재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새나기는 한성인재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많이 쌓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성인재포인트 제도란 본교의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포인트로 환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과 포인트' 90%와 '비교과 포인트' 10%로 산출한다. 교과 포인트는 해당 학기의 성적으로 산출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장 높은 학점인 A+는 95점, 가장 낮은 학점인 D는 60점이 부여된다. F를 받은 과목과 계절학기 성적은 산출에서 제외되며, P/N 과목에서 P를 받으면 B'인 85점으로 간주한다.

학점이 뒤처지는 것 같아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10%의 비교과 포인트로 뒤집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입학성적과 학점만이 선발 기준인 ▲우촌 장학 ▲진리 장학 ▲지선 장학 등과는 달리, 비교과 포인트를 반영한다는 점이 한성인재장학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과 포인트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모집 중에 있는지는 본교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교과 포인트는 한 학기에 최대 200pt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본교의 모든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핵심역량지수'인 ▲창의적 전문지수 ▲포용적 사회지수 ▲열린 세계지수가 설정돼 있다. 본교 인재상인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을 반영한 수치다. 교과목을 예로 들면,

'A과목 창의적 전문지수 30%, 포용적 사회지수 40%, 열린 세계지수 30%'와 같이 핵심역량지수가 분배된다. 교과목의 핵심역량지수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업계획서에 명시돼 있다. 비교과 포인트의 핵심역량지수는 마찬가지로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은 학과(부) 또는 트랙·학년에서 가장 많은 한성인재포인트를 모은 1인이 등록금의 70%를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은 핵심역량지수 3가지를 가장 많이 충족한 학생을 각각 선발해, 등록금의 30~50%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 대상자는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선발한다.

대학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학생의 본분을 무엇보다 '학습'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본분을 다한 이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또한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본교에는 이 기사에서 설명한 한성인재장학금뿐 아니라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이 존재한다. 재학생이 근로·취업과 관련한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육 장학금', 학술·문화 분야의 전국규모대회에 참여해 입상한 재학생에게 주는 '학술문화예술 장학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장학금이 새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장학금을 노려보기를 바란다.

*P/N 과목 : 'Pass/Non-Pass 과목', A+~D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일정 기준 및 출석 등을 충족하면 'Pass'를 받는 과목, 'Non-Pass'의 경우 F로 처리됨.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모바일로 누리는 대학생활

수업을 듣고,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술정보관에서 녹화 강의를 수강한다. 보통의 일과이지만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함께한다. 앱 스토어에도 본교 관련 앱이 많지만, 정말 필요한 앱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본지가 새나기의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앱 5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늦으면 안 돼, 한성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

강의실에 도착했다면 바로 '한성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 앱을 실행해야 한다. 앱 실행 후 하단의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다. 강의 시작 5분 전부터 강의 시작 5분 후까지 출석이 가능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강의실에서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배고플 땐 바로, 웨이티 waitee

열심히 강의를 듣고 나오니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이 시간대의 학생식당에는 키오스크의 줄이 길어 오래 기다릴 것이 뻔하다. 그럴 때는 '웨이티 waitee' 앱을 이용해 휴대폰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하고 학생식당으로 가면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와 있을 것이다.

강의 수강·과제 제출 놓치지 않게, 코스모스

식사를 마친 새나기는 학술정보관에서 녹화 강의를 듣기로 한다. 패드나 휴대폰에 설치된 '코스모스' 앱을 실행하면 e-cl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또한 교수자가 공지사항이나 신규 녹화 강의, 과제 등을 올렸을 때 알림이 오기에, 녹화 강의 수강이나 과제 제출을 놓칠 위험도 줄어든다.

식사하고 할인받고, sosok

하교하는 길, 학교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싶을 때는 본교 총학생회와 제휴를 맺은 다양한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sosok' 앱을 켜 제휴 업체를 확인하면 된다. '2023한성대학교' 코드를 입력해 한성대학교만의 혜택팩을 추가한 후, 제휴 업체를 방문해 앱 화면을 보여주면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교 사이트를 자유롭게, HSU-학생서비스

집에 가는 길, 새나기는 비교과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한다. 'HSU-학생서비스' 앱을 실행해, '스마트자기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현재 모집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본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앱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 e-class 등도 터치 몇 번 만에 접속 가능하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한성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먹킷리스트'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학생에게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밥'이다. 든든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 학업과 대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창외관 지하 1층의 '학생식당'과 상상관 12층에 위치한 '케이키친 한상(이하 한상)'이다. 두 곳 모두 각각의 매력을 갖고 있어 기자를 비롯한 본교 구성원이 자주 이용한다. 기자가 지난 학기 두 곳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 5개를 각각 알아보고, 접해봤다.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하게, 학생식당

학생식당의 메뉴는 20여 개 이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면류&찌개 ▲덮밥류&비빔밥류 ▲볶음밥&라이스 등 기호에 맞춘 메뉴들을 시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학생식당은 평일에만 운영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한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다. 방학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덮밥류의 경우 5백 원만 추가하면 포장도 가능해 자취생이나 기숙사 입주생이라면 식비를 아낄 수 있다.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할

지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지난 학기 학생식당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메뉴 5개를 직접 먹어봤다.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5,924개가 팔린 '양념치킨오므라이스'였다.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양념치킨과 오므라이스까지 즐길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끄는 메뉴다. 오므라이스를 한 입 먹고 양념치킨을 베어 물면 치킨과 볶음밥이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돈까소오므라이스, 소시지오므라이스 등 오므라이스의 변형 메뉴도 존재하기에 이들 또한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하연(산들푸드 한성대1호점) 영양사는 "양념치킨오므라이스는 기존에도 인기 있었지만 유튜브 프로그램 '전과자'를 통해 인기가 더 많아졌다"며 "양념치킨과 오므라이스를 모두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념치킨오므라이스의 뒤를 이은 메뉴는 '제육덮밥'이다. 분식집 단골 메뉴로도 항상 손꼽히는 제육덮밥은 지난 학기 5,539개가 판매됐다. 가격도 4천 3백 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밥과 제육볶음을 잘 비벼 한 입 먹으면 불맛을 제대로 입힌 제육덮밥이 혀를 감싼다. 고기와 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제육덮밥으로 한 끼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전 영양사도 "제육덮밥은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라고 설명했다.

3위를 기록한 음식은 바로 5,191개가 팔린 '육회비빔밥'이다. 가격은 5천 5백 원으로, 다른 학생식당 메뉴에 비하면 비싸지만 시중에 파는 육회비빔밥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구성도 시중의 육회비빔밥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육회비빔밥은 포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학생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용자에게 사랑 받는 메뉴다. 넉넉한 양의 육회와 상추, 볶은 양파, 양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김가루가 올라가 풍미를 더한다. 육회와 채소, 양념을 잘 비벼서 한 입 먹으면 신선한 육회와 채소의 조합이 입안을 상큼하게 해준다.

추운 겨울, 뜨거운 국물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가. 그럴 때는 '돈육순두부찌개'를 주문해 보라. 학생식당에는 다양한 찌개류 메뉴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돈육순두부찌개다. 지난 학기 3,723개가 판매됐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가격은 4천 8백 원으로, 얼큰한 국물과 부드러운 순두부, 든든함을 더

해주는 돼지고기까지 풍성하게 구성돼 있다. 돈육순두부찌개는 주위를 달래줄 뿐만 아니라 전날 음식으로 인해 속취가 찾아왔을 때 속을 풀어줄 해장 음식으로도 제격이다. 기자도 속을 따뜻하게 풀고 싶을 때면 돈육순두부찌개를 주문한다. 뜨거운 국물을 체쳐두고 건더기와 밥을 비벼 한 입 먹으면 차가운 속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건더기를 먹다 보면 국물이 알맞게 따뜻해진다. 그러면 국물에 남은 밥을 말아서 먹으면 된다. 밥을 잘 말아서 국물을 먹다 보면 어느새 뚝배기 바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전 영양사는 "돈육순두부찌개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인기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찌개와 공기밥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인기 메뉴는 '치킨가라아카레동'이다. 가격은 5천 원으로, 2,594개의 판매량을 기록해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았다. 밥과 카레 소스, 치킨이라는 간단한 구성이지만, 학생식당에서 판매하는 카레는 시중에 파는 레토르트 카레와는 다른 맛이다. 레토르트 카레보다 더욱 진한 맛과 색깔이 이를 증명한다. 치킨 외에도 돈까스나 새우튀김 등을 곁들인 카레 메뉴도 있

으니 기호에 맞게 주문해 먹어보기 바란다. 전 영양사는 "학생식당 카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토르트 카레와 달리 일본 고형카레를 사용해 더욱 진한 카레 맛을 즐길 수 있다"며 학생식당의 카레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식당의 메뉴는 매주 바뀌기 때문에 주문 가능한 메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메뉴를 한 번에 판매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전망이다. 전 영양사는 "화구와 면 삶는 기계 등의 개수가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메뉴를 한 번에 판매하면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려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며 메뉴를 번갈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런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식당은 종종 특별 메뉴를 출시한다. 작년에는 마라탕과 마제소바 등이 출시돼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 영양사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인기 있는 메뉴를 출시하고 있다"며 "올해 역시 특별 메뉴를 출시할 계획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1등 양념치킨오므라이스(5,924개 판매)



▲2등 제육덮밥(5,539개 판매)



▲3등 육회비빔밥(5,191개 판매)



▲4등 돈육순두부찌개(3,723개 판매)



▲5등 치킨가라아카레동(2,594개 판매)

고급스러운 한 끼 식사, 케이키친 한상

2022년 10월부터 영업 중인 한상은 한식을 주 메뉴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상의 대표 메뉴는 비빔밥으로, 이를 비롯한 8개 메뉴가 준비돼 있다. 상상관 12층에 위치해 있어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할 수도 있다. 평일에는 각 요일에 맞는 요일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니 각각 다른 요일에 한상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2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다.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해, 토요일에 학교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한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방학 중에는 평일에만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학생식당이 아닌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싶거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 한상을 추천한다. 한상의 총괄 세프 채봉수(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가 직접 선정한 5개의 인기 메뉴를 기자가 경험해 봤다. 채 교수는 "한상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순서로 메뉴를 선정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채 교수는 한상의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가 '육개장'이었다고 전했다. 육개장의 가격은 1만 원이다. 직접 끓인 사골 국물을 이용해 더 깔끔한 맛이 나는 것이 한상 육개장의 특징이다. 진한 국물에 큼직한 대파나 고기 등 건더기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다. 육개장을 푹 끓여 건더기에도 국물의 맛이 잘 배어있다. 건더기만 먹어도 국물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대파나 고기 등의 향이 깊게 배어있는 국물은 조미료만으로 낼 수 없는 한상만의 맛을 가지고 있다. 채 교수는 "육개장은 화학조미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적인 재료에서 나오는 맛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육개장의 뒤를 이은 메뉴는 바로 '우삼겹덮밥'이다. 우삼겹덮밥은 요일 메뉴로 월요일에만 먹을 수 있으며, 가격은 1만 원이다. 밥 위에 간장 양념으로 볶은 우삼겹이 얹어져 나온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우삼겹덮밥을 추천한다. 자극적인 맛이 아닌 부드러운 간장 양념이 고기를 감싸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도 이 부드러운 맛에 매혹돼 우삼겹덮밥을 먹기 위해 월요일에

한상을 방문하고는 한다. 채 교수는 "우삼겹덮밥은 기름기를 빼내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한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돈까스카레덮밥'을 우삼겹덮밥의 뒤를 잇는 인기 메뉴로 선정했다. 이 또한 요일 메뉴로, 화요일에만 먹을 수 있다. 가격은 우삼겹덮밥과 마찬가지로 1만 원이다. 돈까스카레덮밥의 카레는 학생식당의 카레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카레 소스에 고춧가루 등 다른 양념을 넣어 한 번 볶아준다. 그래서인지 돈까스카레덮밥의 카레 소스는 약간 붉은 빛을 띤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라도 걱정 마라.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기자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맛있게 매운 맛이다. 매콤한 카레 소스와 담백한 돈까스가 잘 어우러져 한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육회 비빔밥' 또한 한상의 인기 메뉴 중 하나다. 육회 비빔밥은 한상의 대표 메뉴인 비빔밥에 육회를 얹은 메뉴다. 이 또한 가격은 1만 원이다. 한상의 장점은 기호에 따라 양념을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 등 양념이 테이블마다 비치돼 있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양념을 기호에 맞게 첨가한 후 알맞게 비벼 한 입

먹어봤다. 매콤한 고추장과 신선한 채소들의 조화가 일품이다. 여기에 쫄깃한 육회가 화룡점정을 찍는다. 채 교수는 "육회는 색깔이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금 양념 후 급속 냉동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상 이용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메뉴는 '한상 비빔밥'이다. 한상 비빔밥의 가격은 9천 원이다. 육회를 선호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상 비빔밥을 추천한다. 한상 비빔밥은 육회가 아닌 볶은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양념을 넣고 잘 비벼서 한 입 먹어보면 육회 비빔밥과는 다른 매력 이 찾아온다. 볶은 고기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진다. 한상의 비빔밥 메뉴에 대해 채 교수는 "비빔밥 메뉴는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고 가격 대비 충분한 나물을 올려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을 이용한 학생들이 입을 모아 내는 건의 사항이 있다. 가격에 대한 부담과 메뉴의 다양화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한상 측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가격 인하 등의 조치는 어려운 전망이다. 채 교수는 "재료가 오르고 인건비 지출도 있다 보니 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슈워하기는 이렇다. 한상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1만 원 이하 메뉴를 출시할 예정이다. 바로 '떡볶이'와 '새우불'이다. 떡볶이는 7천 원, 새우불은 5천 원이다. 학생식당에서도 떡볶이는 항상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고 싶은 날에 한상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새우불까지 추가하면 더욱 풍성한 한 끼 식사가 될 것이다.

개강 시기에 맞춰 또 다른 신메뉴도 출시해, 메뉴의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돈까스'와 '유린기'가 새롭게 선보여질 메뉴다. 돈까스는 기존 돈까스카레덮밥에 올라가는 돈까스 두 장과 샐러드로 구성된다. 유린기도 돈까스와 마찬가지로 샐러드 위에 튀김이 올라가는 구성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두 메뉴 모두 기존 메뉴들과 마찬가지로 예상 가격은 1만 원이며, 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다면 샐러드 2천 원을 추가해야 한다.

한상의 메뉴 전반에 대해 채 교수는 "한상은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떡볶이 등 신메뉴도 자체 개발한 소스로 덜 자극적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육개장'



▲한상에서 즐길 수 있는 '우삼겹덮밥'



▲한상의 '돈까스카레덮밥'



▲한상에서 판매 중인 '육회 비빔밥'



▲한상의 대표 메뉴인 '한상 비빔밥'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제56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의 오늘을 기록하라

한성대신문사에서 제5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영상 촬영
- 레이아웃·인포그래픽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카드뉴스·숏폼 제작 및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간지 및 주간지 제공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모집기간

3월 8일(금) 23시 59분까지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